

'균형발전 필수' 전주 특례시 지정, 끝장 본다

시, 19일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서 안건 제출 25일 국회서 세미나 열고 정치권에 강력 촉구

전주시가 시민, 도내 타 시·군, 지역정치권과 연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바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북지역 타 시·군과의 연대와 협력, 정부와 정치권 건의 등을 통해 전주 특례시를 실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전북의 성장잠재점자 문화로 특화된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고삐를 당겨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

현하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포함해서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다.

먼저, 시는 그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 등에서 차별받아온 전북이 한 목소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9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되는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키로 했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특례시 지정 추진 동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주시와 여건이 비슷한 충북 청주시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추진동력인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례로, 2월 중으로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뉘어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2019 지혜의 원탁'을 통해 전주 특례시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미안합니다" 14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호(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재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 융합 개발 필요

2030 전주문화비전 정책토론회... 장소·연결·문화적 확산·소통 중심 'LION' 전략 제시

전주시가 14일 한국전통문화 전당에서 문화전문가와 청년 예술가, 예술대·예술고 학생,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수립중인 '2030 전주 문화비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문화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수립 중인 '2030 전주 문화비전'의 6개 분야에 대해 함께 분석하고 제안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그간 2030 전주 문화비전 수립을 위해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포럼과 정책 워크숍, 전문가 심층인터뷰, 자문회의를 수차례 개최했으며 지역전문가와

예술인, 종사자를 중심으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쳐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2030 전주 문화비전 수립 영역의 책임연구원인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2030 전주 문화비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주시 환경과 문화예술·전통자원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류 박사는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의 '융합'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Local-장소 △Integrated-연결 △Outward-문화적 확산 △Networking-소통을 중심으로 한 'LION' 전략을 제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를 좌장으로 문문걸 예원예술대 교수와 원도원 원광대 교수, 금기형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정명희 박사(전주시), 이재운 전주대 교수, 강동진 경성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도 펼쳐졌다.

서배원 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전주 문화를 입고 먹고 담고 잘 수 있는 문화로 숨 쉬는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문화 밭그림을 충실히 그려 나가겠다"며, "현재도 그렇지만 문화가 곧 경제가 될 것은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때문에 문화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교통지도 단속직원 직무교육 실시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지난 13일 완산구청 4층회의실에서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직원 및 주정차단속원, 사회복무요원 등 26명에 대해 불법주, 정차 차량 단속지침, 단속요령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구성된 교통지도팀이 교통단속 요령을 숙지하고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객리단길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시민들의 질서유지를 제고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뜻에서 실시됐다.

교육에 앞서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구청장 부임이후 주정차단속에 대한 집단민원과 구청장실 항의 방문, 민원전화 등으로 저 역시 힘들지만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여건속에서도 실적이 연연하지 말고 제 할 일을 다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교통질서가 확립해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배틀그라운드 게임 핵' 판매 25억 쟁겨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판매 일당 3명 붙잡아



인기 FPS(인칭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 유저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게임 핵'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판매 총액 A모씨(2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매자를 모집한 뒤 게임 핵을 판매한 C모군(1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FPS 게임 '배틀그라운드' 유저 2만여 명에게 게임 핵을 판매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범행을 공모했다.

또 중국 해커에게 게임 핵을 구매한 뒤 금융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구입한 게임 핵을 119개의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기능별로 7000원에서 25만원의 비용을 받고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핵은 적군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적군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등 여러 기능의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프로그램 유통조직 존재를 확인한 뒤 압수수색 등을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내 판매총액 및 판매상이 게임핵 판매를 위해 운영한 불법 사이트 119개중 84개를 강제폐쇄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중국 해커의 뒤를 쫓는 한편 추가 판매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1차분 공사완료 추진

전주시 효자동과 삼천동, 우이동, 호성동 일대의 노후상수관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더욱 깨끗하고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강승권)는 효자동과 평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1차분 공사가 현재 7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연간 100~150억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총 1,200억원을 투입해

급수구역 89개 소블록의 노후관을 교체·개량하는 사업이다.

본부는 상수도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차분 공사(우이동·호성동 일원)에 착수하는 등 총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먼저, 효자동·평화동 일원의 1차분 사업의 경우 올해 모든 공사가 완료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도물 이용 불편이 줄어들고 노후상수관에서 흘러나와 땅으로 스며드는 수도물을 줄여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맑은물사업본부는 또 올해 본격화되는 2차분 공사도 연말까지 70% 공정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2차분 공사에 이어 3차분 사업으로 서신동과 중화산동 일원의 총 42km의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맑은물사업본부는 올해 맑은물공급사업 구간 외에도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 덕진구 변방동 지역의 노후관교체공사 등 별도도 추진하고 도시 정원에 대한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하는 등 땅속으로 새어나가는 수도물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8년 호화 도피' 최규호, 1심 징역 10년

최규호 전 농어촌공사장에는 징역 1년 집행 2년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익원을 챙기고 8년2개월간 잠적했다가 구속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0년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및 사기·국인 건강보함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3억원을,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전북 지역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공정·정당하게 수행해야 함

에도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련의 도피행각은 사법질서를 무시한 안하무인 적인 반사회적 행위로서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점에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액수의 도피자금으로 8년이 넘는 장기간의 여유로운 도피 생활을 하고, 검거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 보면 과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에 대해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가 친형제라는 사사로인 관계를 구실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무시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덕진구, 초등학교 문화인성 성장캠프 운영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양연수)은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양연수)은 전주시 덕진구 초등학교 문화인성 성장캠프를 연다.

덕진구 생활복지과는 2월 14일부터 1박 2일간 범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4~6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속 세상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친근감을 느끼고 생카이티를 키울 수 있는 문화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을 받아 민·관 협력사업으로 덕진구청과 덕진노인복지관이 함께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부모와 떨어져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사용법을 배우게 된다.

주된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체 놀이,

UCC제작, 조별모임, 강의 등을 통해 그동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다양한 미디어 속 폭력성을 대면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중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능동적 노력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신명애 덕진구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캠프는 무분별한 미디어 홍수 속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올바른 판단력과 자제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올 전주시 5.05% 상승

전주시의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5.05%(완산구 5.14%, 덕진구 4.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9.42%에 비하면 4.37%p 낮은 수치다.

전주지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완산구 풍남동2가로 건강유익마을의 관공수로 증대와 활성화로 인해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년 대비 13.69% 상승했다. 또, 덕진구의 경우 전미동1가가 예코시티 개발사업의 여파로 17.36% 올랐다.

전주시 표준지 중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금강재화)로 695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완산구 색장동 산 153(대성동 남동쪽 일야)로 780만원/㎡이다.

전주시는 대다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 전가 또는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3월 14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35개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등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크린업24 셀프빨래방 송천점

행복UP 세탁서비스 후원협약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주민센터와 크린업24셀프빨래방 송천점은 지난 13일 '말그대끼끄미행복UP 세탁서비스' 사업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탁이 어렵거나 세탁시설이 열악해 세탁이 쉽지 않은 독거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 두꺼운 이불과 겨울 옷 등을 수거해 세탁 후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찾아가는 무료 세탁 서비스 사업으로 3월부터 송천2동 동내복지 특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크린업24셀프빨래방 송천점 모정철 대표는 "저희 빨래방이 제공해 드리는 작은 세탁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이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체크카드 훔친 50대 검거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50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A모씨(50)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37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ATM기에서 피해자 B모씨(61)가 두건 한 체크카드를 훔친 뒤 3회에 걸쳐 21만2천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3시경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일했던 마트 침입 절도범 덮미

자신이 일했던 마트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14일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A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경 전주 시내 한 마트에 침입해 키운터에 있던 현금 15만2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마트에서 근무했으며 새벽에도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